



디자인대학, IT공과대학 보궐선거 종료

지난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디자인대학과 IT공과대학 학생회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다. 23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미래관 지하 1층 DLC에서 후보자 정책토론회도 열렸다. 선거는 모두 단선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투표는 ▲미래관 앞 ▲탐구관 앞 ▲상상관 1층 ▲공학관 B동 1층 총 4개 투표소에서 실시됐다. 개표는 투표가 마감된 29일

오후 11시부터 창의관 소강장에서 진행됐다.

디자인대학 선거에는 총 재적인원 1,190명 중 609명(51.18%)이 투표에 참여했다. 3월 30일 개표 결과, 찬성 543표(89.16%), 반대 29표(4.76%), 무효 37표(6.08%)로 '기대의 윤상준(제품디자인 4) 후보, 김도현(예선 3)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윤상준 당선자는 "늦게 당선된 만큼 임기 내에

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말했다. 핵심 공약으로 두 당선자는 '야간전류 대리신청'과 '플리마켓'을 선정했다. '플리마켓' 공약에 대해 윤 당선자는 "이 행사를 통해 신입생들이 선배의 작품을 보면서 단과대학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IT공과대학 선거에는 총 재적인원

1,955명 중 1,009명(51.61%)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난 3월 30일 개표 결과, 찬성 828표(82.06%), 반대 66표(6.54%), 무효 115표(11.40%)로 '소담'의 나두원(컴공 3) 후보, 정영화(기계 3)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나두원 당선자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만큼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꼭 이루고 싶은 공약으로 두 당선자는 소통 강화와 '공학용

계산기 대여 사업'을 꼽았다. '소통 강화'에 관해 나 당선자는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 페이스북 페이지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고, 학과 행사에서도 직접 학생들에게 다가가 애로사항을 청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희승 기자

yoonehg@gmail.com

문헌정보전공 소속 도서활동부,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 실시

지난 달 28일, 응용인문학부 문헌정보전공 소속 집부인 도서활동부가 성북구에 위치한 정릉도서관에서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정보소외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해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 봉사에 나선 것이다. 본 활동은 올해 8월까지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진행된다.

학생들은 사전에 준비한 교육 자료를 토대로 ▲문자메시지 전송 ▲연락처 저장 및 검색 ▲전화 수신과 발신 등 기본적인 사용방법부터 ▲카카오톡 전송 ▲인터넷 뉴스 구독

▲SNS 가입 등 스마트폰 활용법을 교육했다. 또한, 어르신이 평소 궁금했던 스마트폰 사용법을 학생에게 질문하고, 학생들이 그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교육을 마친 후, 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일지를 작성하고 보완점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는 다음 교육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재선(정릉도서관) 사서는 "도서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대다수가 방법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모두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혀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포부를 드러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김현진(인문 2) 학생은 "지식정보사회에 이르러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됐지만, 대부분의 어르신이 사용법을 잘 모른다. 그분들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기까지는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생 한 명당 어르신 1-2명을 배정해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 교육 때 참석했던 어르신 한 분이 이번에도 자리해주셨다. 오늘은 SNS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다"며 뿌듯한 마음을 표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오늘 많은 것을 배웠다. 학생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마음이 젊어진 것 같다. 학생들에게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지역사회에 이런 활동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가연 기자

shell990824@naver.com

전자출결 오류, 지난 학기에 이어 또 발생

개강 직후인 3월 3일 안드로이드 5.0 이하 버전에서 전자출결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작동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안드로이드 하위 버전 시스템이 일부 변경되면서 기존 시스템에 맞춰 개발한 앱이 구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한 조치로 지난 3월 23일, 학교는 전자출결 앱을 업데이트했다. 하지만 업데이트 직후인 3월 26일에도 전자출결 오류가 개선되지 않아 혼란이 빚어졌다.

학생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23일에 앱 업데이트를 한 이후에도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수현(인문 2) 학생은 "전자출결 앱에서 오류가 발생할 때마다 당황스럽다"며 "출결은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내 휴대폰에서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인가 싶어 불안하다. 강의에 들어가갈 때마다 교수님께 출석체크를 부탁드려야 하는 것도 번거롭다"고 말했다.

김성자(학사지원팀) 팀장은 "지난 3월 23일 오류를 수정한 앱을 등록했다. 하지만 이후 변경된 앱

시스템이 기존의 한성대 시스템과 충돌하면서 일부 기기에서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초기 오류 수정 이후에도 앱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오류는 지난 3월 27일에 이루어진 최종 업데이트 때 대부분 해결됐다. 이에 대해 그는 "23일 업데이트한 앱에서 발생한 오류는 간단한 문제라 빠르게 조치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자출결 앱 작동 상황에 대해 김 팀장은 "iOS 버전은 학기 초부터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버전 앱은 지난 27일 마지막 업데이트 이후 안정화됐다. 최종 업데이트 이후 오류 관련 민원 역시 현저히 감소했다"고 전했다.

전자출결 앱의 추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과 교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업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명아 기자

mhbt0330@naver.com

지면안내

보도
끊이지 않는 휴먼구역
논란, 개선될 수 있다 02

사회
청년 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있을까? 03

문화
특별한 공간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 04



사람사
'꿈틀꿈틀' 맛있는
애벌레 이야기,
'아미아미' 야미박스 05



학술
디자인과 마케팅의
양상불 '브랜드' 06



오피니언
의화정, 삼학송 등 07

기획
한성인은 고양이를
좋아해 08



기자사령

면
김기범(사회과학 1)
조슬기(패션 1)

바로 잡습니다

지난 532호 2면에 게재됐던 「교육혁신원, 핵심역량 진단 검사 실시」 기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능력개발원 주도 하에 개발' 부분을 '본교 교육성과관리센터에서 개발'로 바로 잡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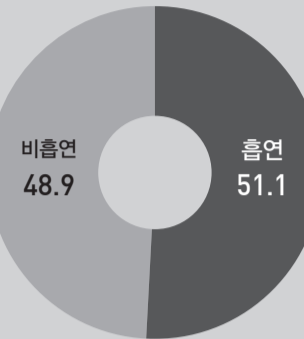
▲행사에 참여한 학생이 어르신에게 스마트폰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끊이지 않는 흡연구역 논란, 개선될 수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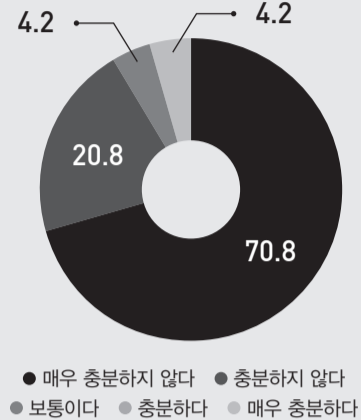
교내 흡연부스 설문조사 결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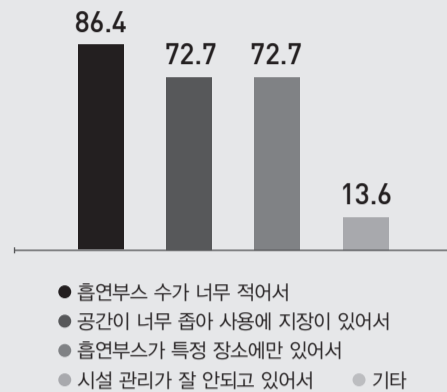
Q. 귀하의 흡연 여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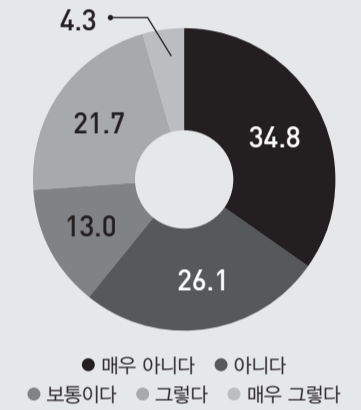
Q. (흡연에 답한 경우) 학교 내 흡연부스 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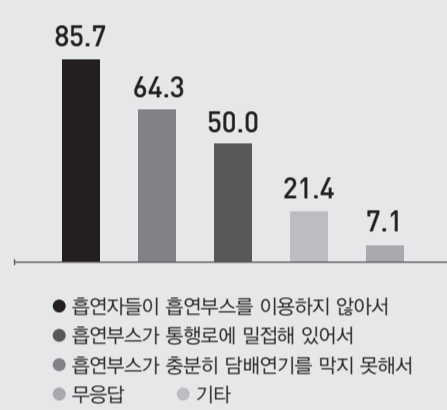
Q. ('매우 충분하지 않다'와 '충분하지 않다'에 대한 경우) 어떤 점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응답)



Q. (비흡연에 응답한 경우) 학교 내 흡연부스가 간접 흡연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Q. ('매우 아니다'와 '아니다'에 대한 경우) 어떤 점에서 도움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응답)



※ 본 설문지의 표본은 47명입니다.
※ 본 그래프는 소수점 아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입니다.

지난 3월 학생관 근처에 흡연부스가 설치됐다. 이는 총학생회 '잡이 내세운 공약 중 하나로, 송진기 총학생회장이 당선된 후 교내 행정부서에 해당 내용을 건의한 결과다. 하지만 흡연권과 건강권에 대한 논란은 흡연부스 설치 후에도 '한성대학교 대나무숲' 같은 학교 커뮤니티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성대신문사>는 여론을 파악하고자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의 91.6%가 '학교 내 흡연 공간이 충분하다'는 문항에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흡연자의 대다수가 흡연공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는 ▲흡연부스 수가

너무 적어서(86.4%), ▲공간이 너무 좁아 사용에 지장이 있어서(72.7%) ▲흡연부스가 특정 장소에만 있어서(72.7%) ▲시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13.6%) 등으로 답변했다. 시설관리 측면에는 큰 불만이 없지만, 흡연부스의 공간이 협소한 점과 장소의 접근성 문제에는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흡연자의 60.9%는 '학교 내 흡연부스가 간접흡연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문항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흡연부스 운영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숫자는 흡연자보다 적었지만, 과반수 이상의 비흡연자가 여전히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들은 흡연부스가 간접흡연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흡연자들이 흡연부스를 이용하지 않아서(85.7%) ▲흡연부스가 통행로에 밀접해 있어서(64.3%) ▲흡연부스가 충분히 담배연기를 막지 못해서(50.0%) ▲기타(7.1%) ▲무응답(21.4%) 등으로 응답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비흡연자가 느끼는 불만의 대다수는 흡연자의 흡연부스 미사용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해 일부 비흡연자들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종석(시설지원팀) 담당자는 "흡연부스를 추가하거나 공간을 늘리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며 "협소한 학교 부지, 주민과의 갈등, 학생들에 대한 배려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여 있다"고 공간 확충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흡연자에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안성욱(학생장학팀) 팀장은 "처벌과 규제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있으나, 자체적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이를 실시하기는 어렵다"며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한성대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식구인 만큼 서로 이해하는 게 최선"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에 더해 안 팀장은 "현재 흡연부스를 증축·증설할 계획은 없지만, 총학생회 같은 공개기구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한성 #타임라인

해외인턴십 설명회 개최

지난 3월 30일, 취업지원팀이 상상관에서 'Hansung 해외인턴십(이하 해외인턴십)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외인턴십은 우리학교와 협약을 맺은 미국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프로그램이다. 해외인턴십에 참여하면 원하는 업종의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현지 취업도 할 수 있다. 4학기 이상 수료한 재·휴학생은 물론, 졸업생도 참여할 수 있다. 단, 전체 학기의 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해외인턴십에는 2가지 지원유형이 있다. 토익, 토플 등 공인영어성적이 있거나, 교내에서 진행하는 영어캠프를 수료했다면 1유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공인영어성적은 없지만 4월 30일까지 공인영어성적 제출이 가능하거나, 이번 년도에 영어캠프를 수료할 예정이면 2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선발 기준과 과정에 차이가 없으므로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든 조건은 동일하다.

이소현(취업지원팀) 담당자는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활용할 기회를 얻는 것은 중요하다. 이번 해외인턴십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여러분만의 소중한 경험을 쟁취하길 바란다"고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설명회에 참여한 서정연(의예 4) 학생은 "해외인턴십 관련 세부 정보를 얻기에 유익한 시간이었다. 오늘 얻은 정보가 유념해 지원할 것"이라며 참여 의지를 내보였다.

장수진 기자 qp01110@naver.com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동문 세미나 개최



지난 4월 6일 동문기업 '피플링크' 회의실 피플 스퀘어에서 '한성 CEO와 함께 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은 우리학교 졸업생 모임이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부 '한성대 동문 교류의 시간'과 2부 '한성대 재학생 스타트업 PR'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성북구청, 독서토론아카데미 실시

'2018 독서토론아카데미 기본과정'이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성북아트홀에서 진행된다. 이 행사는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성북구청에서 개최하는 행사다. 독서토론아카데미는 도서관 및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독서토론 모임을 확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진행 중이며, 지역 독서회의 체계적인 운영과 독서토론에 대한 지식 전수 및 실습 교육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참가자는 4월 2일부터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100명까지 선발한다.

이번 과정은 '책 읽기가 왜 어려운가? 말하기는 왜 어려운가?'를 주제로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문학과 인문사회로 만나는 비경쟁 독서토론'과 '저자와의 만남을 통한 논평'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모든 교육생은 수강 전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교육내용을 확인해, 강의별 필독서를 읽고 강의에 참여해야 한다. 필독서는 교육생과 강사가 사전에 협의한 작품 혹은 성북구가 배경이 되는 작품 중 선정된다.

문성현(성북구청 문화체육과) 담당자는 "참가자들이 다른 사람과의 토론을 통해 지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독서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구청이 노력하고 있으니, 한성대학교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7년째 진행되는 성북구 독서토론아카데미 기본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수민 기자 sff1228@naver.com

제2회 학술정보관 전자정보박람회 개최

지난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학술정보관 2층 로비에서 제2회 학술정보관 전자정보박람회가 열렸다. 이번 박람회는 학술정보관이 주최했으며, 학술정보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e-book, 학술데이터베이스(DB)와 같은 전자정보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교보문고, 한국학술정보 등 관련 업체 9곳이 참여했다. 참가 업체들은 행사장에 각각 부스를 설치했고, 부스를 방문한 학생들에게 전자정보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전자정보 서비스는 학술정보관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재학생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전자정보원'을

클릭하면 여러 기업의 사이트 링크가 나온다. 각 사이트에 접속하면 학위논문, 학술지논문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자료들을 리포트 작성, 연구 과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학술정보관과 제휴를 맺은 업체로는 박람회 참가기업 9곳 외에도 학지사, 테일러 앤 프랜시스 등이 있다.

이번 박람회에 대해 변관주(학술정보관) 담당자는 "학생들 사이에서 전자정보 서비스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학생들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희승 기자 yoonihg@gmail.com

'경제와 건강 창업' 기획 토크쇼 실시

오는 5월 1일에 상상관 컨퍼런스 홀에서 '경제학과 기획 토크쇼'가 진행된다. 이번 토크쇼에서는 '경제와 건강 창업'이라는 주제로 건강 관련 기업의 창업자들을 초대해 그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토크쇼에는 이지원(파니피치오) 대표, 김수정(텔리케이) 대표, 박준수(건강한형제들) 대표가 참석해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소정의 경품과 비교과 포인트 10포인트가 지급된다.

또한, 오는 5월 29일에는 '정보통신 뉴미디어'를 주제로, 평창동계올림픽 대변인을 지낸 나승연(오라티오) 대표, 유정석(현대케이빌) 대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토크쇼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효진(경제학과) 조교는 "자신만의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덜어주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또한, 서 조교는 "이번 토크쇼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다.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좋은 정보를 듣고 가길 바란다"며 기대를 표했다.

경제학과는 토크쇼 외에도 5월 8일에 새로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CJ헬로와 CJ E&M 등의 기업을 견학하고, 전문가의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동정란

- 홍승린(사회과학대학) 교수**
홍 교수는 지난 3월 30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를 임기로 하는 기획재정부의 '세제발전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 손경연(융복합교육과정) 교수**
손 교수는 지난 2월, 책 '나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일까'를 출판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구성된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달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 수요 부진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들이 대기업만이 아닌 중소기업에도 관심을 갖도록 유인해 청년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돼 있다. 과연 이 정책들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까?

청년 일자리 대책

중소기업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 교통비 매달 10만 원 지원
- 중소기업 취업시 5년간 소득세 면제
- 보증금 4년간 1.2% 금리 대출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계약학과·해외취업 강화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설
- K-Move스쿨 활성화
- 현장실습 훈련 전담 인력 지원
- 사내대학 확대 및 활성화
- 청해진 대학 확대

대학 역할 확대

- 진로교과 개설 확대
- 대학 진로교육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 진로교과 가이드북·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진로·취업지원 전담기구 지정 및 인력 배치



현금 지원이 최선책인가

정부는 청년 구직자가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를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로 진단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 현금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의 실질소득을 1천만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 평균 2500만 원인 중소기업 연봉을 대기업 평균 연봉 수준인 38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교통비를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고, 3년간 근무하면 총 600만 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해 3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한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으며,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 원까지 4년간 1.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의 원인 진단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민(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고용보조금이나 임금 보전만이 아닌 원하청구조, 불공정거래 등의 악습을 개혁해 전반적으로 좁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의 제도 운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소기업 관련 취업 인센티브 강화에만 몰입하다보니 구직 과정에 드는 비용 등의 문제는 부차적으로 다뤄졌다. 임금 문제만이 아닌 조직문화와 근무시간, 산업 안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양보단 질을 추구해야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은 '선취업-후학습' 정책이다. 이는 대학교 2학년부터 일과 학습을 병행하도록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란 직무 능력

향상,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등을 위해 기업체와 기관 등이 대학기관과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학위 과정이다. 이 학과에 입학하면 1학년 동안 '기업 맞춤형 전공 집중교육'을 이수하게 되고, 이후 2, 3학년 때 기업에 취업해 현장실무교육과 취업에 필요한 심화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해외취업 활성화 부문에서도 다양한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일본·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지역 해외취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의 해외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K-Move스쿨'을 활성화하고, 대학에서 운영하는 해외취업 준비과정 지원 프로그램인 '청해진 대학'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일거리의 양적 개선에만 치중되어 있고, 일거리의 질적 개선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김 처장은 "고졸 취업 청년이 겪는

문제는 다양하다. 학력 차별을 비롯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매우 제한적이고 일거리의 질도 떨어진다. 따라서 이번 '선취업-후학습' 정책은 고졸 청년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그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가 신설돼도 해당 학과와 연계하게 될 일거리의 질이 괜찮은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외취업 강화와 관련해 김 처장은 "이전에 비해 보완된 부분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목적이 불분명하다. 고용률 지표 개선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비판했다.

청년 의견 반영이 관건

이번 일자리 대책에 따르면 취업 시장에서 대학의 역할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공동으로 '민관합동 진로지원 개선 TF'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학 진로교과 개설 확대 ▲대학 진로교육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진로교과 매뉴얼, 가이드북 개발·보급 ▲대학 내 진로·취업지원 전담기구 지정 및 인력 배치 등 대학의 학생 진로지원을 위한 정책이 주요 내용이다.

대학 역할 확대와 관련해 김 처장은 "진로 모색을 지원하는 방안이 기획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될지, 그에 따라 서비스 질적 관리가 이루어질지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질 것이다.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대학은 학생의 입장을 잘 반영하는 쪽으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며 이번 대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청년에게 드리워진 '청년 대출'의 그늘

20세를 넘겨 성인이 된 순간부터, 청년들은 항상 대출이라는 유혹에 노출된다. 시중은행을 필두로 한 제1금융권에서 안내하는 수천만 원 규모의 거창한 대출은 아니더라도, 수십만 원 규모의 소액대출은 '즉시 대출', '간편 대출' 등의 문구로 청년들을 유혹한다. 이에 더해 지난해 4월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7월에는 카카오펌크가 연달아 정식 출범하면서,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대출 또한 가능해져 청년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경로가 더욱 다양해졌다.

청년 대출이 위험한 이유는 그들이 상대적으로 건전하고 신용 있는 대형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대학생은 특별한 금융거래가 없으므로 대개 '중신용자'로 분류돼 신용등급이 6등급으로 정해진다. 물론, 중신용자도 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중신용자에게 대출해 줄 경우 은행이 감당해야 하는 위험 부담이 커지므로 주요 은행들이 속한 제1금융권에서는 청년이 대출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주요은행을 비롯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청년들은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 심지어 대부업체와 같은 사금융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특히, 사금융권은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쳐, 이후에 대출할 때도 지장을 준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햇살론'과 같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하는 편이 낫다. '햇살론'은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이렇게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만든 정책금융상품을 '서민금융' 상품이라고도 한다. 이런 상품은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금리나 신용등급 관리 측면에서 이용 부담이 훨씬 적다.

이에 따라 청년의 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년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학교 김상봉(사회과학부) 교수는 "현재로서는 정부가 정책금융으로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금융권은 서민대출상품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에 소극적이므로 정부가 정책

적으로 관련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애초에 청년은 제2금융권에도 가서는 안 된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축은행, 대부업체를 비롯한 사금융을 찾거나, 카드를 이용하는 행동은 모두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경고하며 "대출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한다. 금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한영섭(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부설 내지갑연구소) 소장은 "청년들은 대책 없이 대출을 받기보다는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대출을 받더라도 고금리 상품보다는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낫고,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금융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통해 상환계획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法

보이지 않는 위협, '불법건축물'



대학생 한성 양은 지방에서 상경한 자취생이다. 한성 양은 평소 자취방의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지만, 값싼 월세 때문에 이를 참아왔다. 하지만 옆집의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통화하는 소리 등 생활 소음이 지속되자, 그녀는 더 참지 못하고 집 주인에게 해결을 요구했다. "시정이 불가하다"는 집 주인의 대답에 한성 양은 사비를 들여서라도 집을 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직접 건물을 분석하게 된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이 허가 없이 방을 여러 개로 쪼개서 임대하는 불법건축물임을 알게 됐다. 계약 당시 불법건축물인 것을 고지 받지 못했던 한성 양은 집 주인에게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계약 당시 불법건축물에 무지했던 한성 양은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불법건축물에는 '불법 증·개축 건물'과 '불법 용도 변경' 건물이 있다. 전자는 베란다 불법 확장, 옥탑방 불법 설치, 방을 쪼개어 임대 가구를 증설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사무실용 건물을 주거용 원룸으로 개조하는 경우다. 이렇게 불법으로 시공된 건축물은 건물 내부에 결함이 많으며, 특히 화재 사고에 취약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밀양 병원 화재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의 주원인은 불법 증·개축 건축물에 병원을 개설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고, 피해가 확대되었으며, 비상구 개수를 줄이고 복도를 좁힌 탓에 환자들을 구출하기 힘들었다. 이처럼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대학생들은 불법건축물의 존재와 그 위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실제로 자신이 계약할 건물이 불법건축물인지 알고 계약하는 경우는 적다. 하지만 매물의 불법건축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계약 전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민원24'에 접속해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하면 자신이 계약할 건물의 불법건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장세만(세명공인중개사) 대표는 "만약 건축물 관리대장에 정보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구청의 건축·주거과에 상담을 요청해 도면과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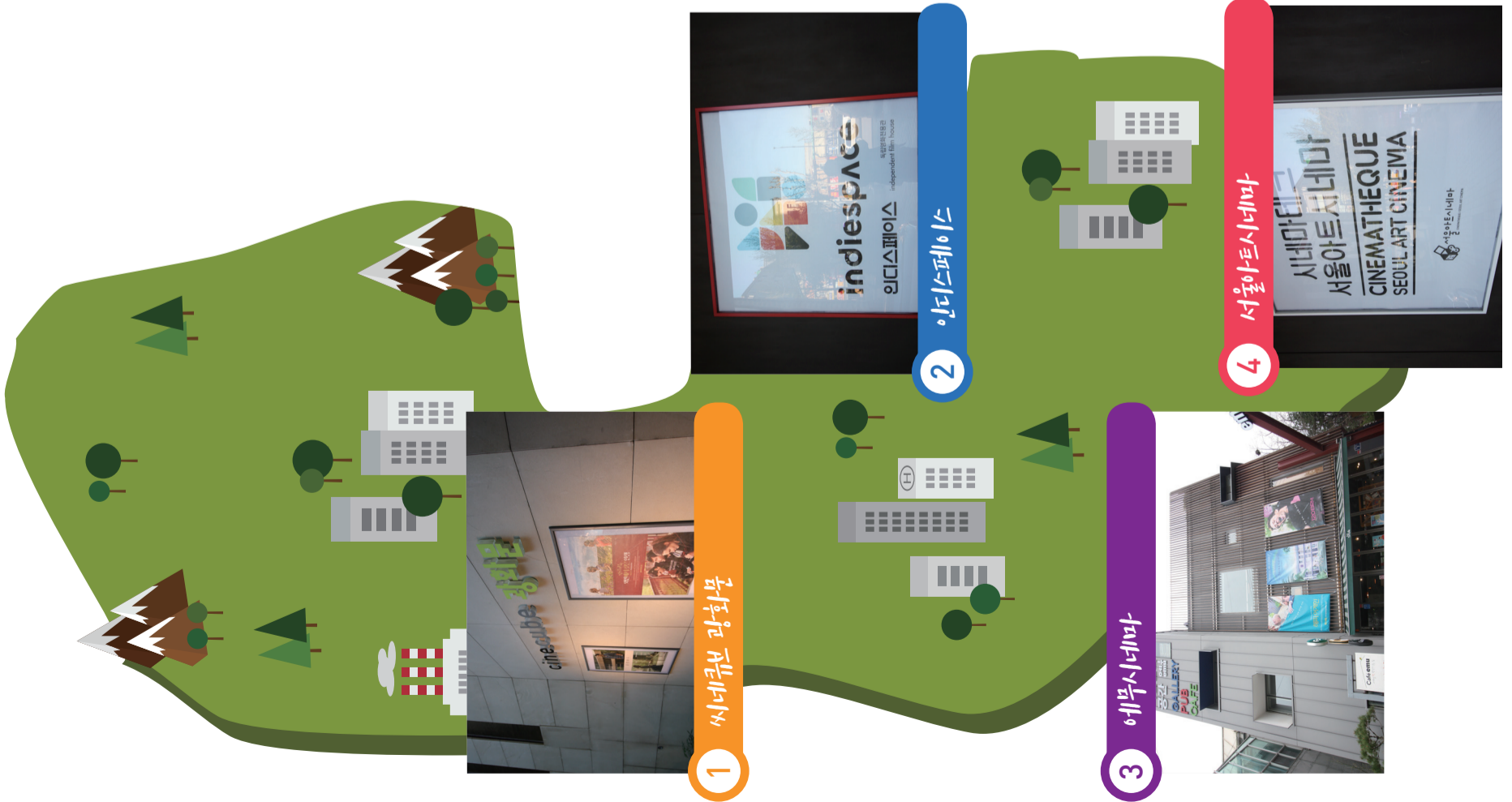
이 외에도 계약 당시 매도인(임대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이 있다. 매도인이 불법건축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했을 경우, '매도인 하자 담보책임'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선 일화의 한성 양은 해당 법의 적용으로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월세 부담을 줄이고자 건물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하는 학생이 많다. 이 때문에 불법건축물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다반사다. 물론,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당장의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일반 거주자보다 크다는 사실은 알아둬야 한다. 미래의 안전을 위해 이 글을 읽는 자취생들은 방을 구할 때 불법건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하기를 바란다.

장선아 기자

suna0913@hansung.ac.kr

중로, 독립영화관 안내서



<독립영화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 따르면 "독립영화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영화와 달리, 예술적 의도나 주관에 더 많이 드러나는 영화"를 말한다. 물론 예술과 수익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고, '예술성이 드러난다'는 것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손지현(에뮤시네마) 프로그래머에 따르면 "영진위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게 구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화를 직접 보고, 다른 영화보다 예술성이 더 돋보인다는 생각이 들면 예술·독립영화, 그렇지 않다면 상업영화로 판단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흐로 영화의 정성시대다. 현재 상영 중인 <군지암>과 같은 영화의 흥보급이나 후기는 SNS에서 관심받고 있고, 과거 감히 쳐다보기도 힘들었던 '천만 관객'의 허를 넘긴 작품들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또한 <아벤져스: 인피니티 워>, <데드풀2>와 같은 기대작은 개봉 전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처럼 'CG',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같은 상업영화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업영화'는 계속해서 활발하게 소비되고 있지만, 이러한 번영이 무색하게도 '독립영화'의 존재감은 희미해지고 있다.

대형 영화관에서 독립영화를 다루는 독립영화 전용관을 개관하고는 있지만, 그 수가 매우 적다. 게다가 독립영화를 상영하더라도 시간대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좌석이 많지 않아, 대중이 독립영화를

접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독립영화를 마음껏 관람할 수 있는 영화관은 없는 걸까? 보통은 그렇지만, 온 종게도 우리학교 근방에는 곳곳에 '독립영화관'이 자리잡고 있다.

나누고 누리는 아리랑시네센터

아리랑시네센터는 2004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설립한 독립영화관으로, 아리랑고개 부근에 위치해있다. 사실 아리랑시네센터는 처음부터 영화관 용도로 건축된 것은 아니었다. 아리랑고개는 1998년 개봉된 나운규 감독의 <아리랑> 영화 촬영지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축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게 아쉽겠느냐는 의견이 나와 현재의 모습을 띄게 된 것이다.

아리랑시네센터는 총 6개 상영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1·2관은 상업영화를 상영하는 곳이다. 3관은 독립영화전용관으로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6회 독립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아리랑시네센터는 상복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어 다른 영화관에 비해 가격(성인 기준 7000원)이 저렴한 편이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도서관, 카페, 마일플러스튜디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도 애용되고 있다. 실제로 아리랑시네센터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림단편영화제다. 매년 상반기에 유럽 각국의 단편 영화를 하나의 주제로 모아 무료로 상영하는 행사다. 또한, 감독이나 평론가를 초청해 관객과의 대화를 열기도 한다. 약 10일간 진행되는 이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희장(아리랑시네센터) 센터장은

특별한 공간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



"지역주민에게 더 좋은 문화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꼭 아리랑시네센터에서 영화를 관람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영화를 더 많이 보고 영화라는 문화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수다쟁이들의 핫플, 에뮤시네마

복합문화공간 에뮤는 2016년 5월 중로구에 개관했다. 이곳은 지하 2층과 지상 4층, 총 6층으로 이뤄져있다. 이 중 2층은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에뮤시네마로, 다른 층은 북카페, 공연장, 갤러리, 옥상정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에뮤시네마는 상영관이 하나뿐이고 좌석도 51개가 전부인 소규모 극장이어서, 사실상 단체로 찾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상영관이 적다는 사실을 감수하고도 찾아갈 만큼 이곳에서는 독특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시네마 토크(에프터는 토크)와 살롱데 부가 바로 그것이다. 먼저, 시네마 토크는 영화 상영 종료 후, 프로그래머(상영작을 선별하고, 상영 일정을 계획하는 사람)에 대해 영화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해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밝혔다.

우리 손으로 만드는 인디스페이스

인디스페이스는 국내 최초의 민간 독립영화전용관이다. 2007년 11월, 명동에 위치한 중앙시네마에서 처음으로 개관했다. 그러나 2009년 정부 지원금이 끊겨 3년간 운영을 중단해야 했다. 이후 2012년, 영화인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통해 광화문에서 다시 개관했고, 종로3가에 있는 서울극장 6관으로 이전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앞서 소개한 곳들과는 다르게 이곳은 영진위, 서울영상위원회의 지원금과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디스페이스 회원들은 27개 방식으로 후원한다.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CMS 방식의 정기 후원과 인디스페이스 좌석을 구매하는 '나눔자리' 후원이 바로 그것이다. '나눔자리' 후원은 영화관 좌석에 있는 명패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것으로 후원 금액은 200만 원이다. 개인 명의로 후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 이름도 새길 수도 있다.

이은지(인디스페이스) 팀장은 "소수자를 대변하는 영화, 사회를 여러 시선으로 바라보는 영화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며 "인디스페이스가 관객의 삶의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벤져스: 인피니티 워>, <데드풀2> 등의 상업영화도 좋지만, 가끔씩은 주변에 있는 독립영화관을 찾아가보자. 평소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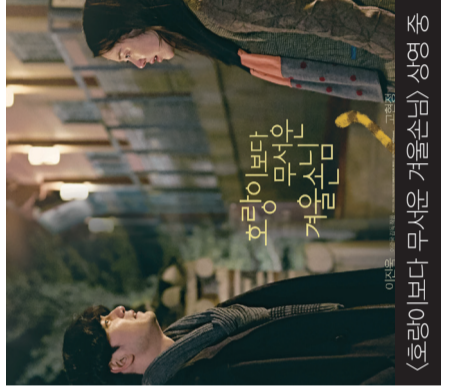
김종민 기자 whidalst148@naver.com



<렛 더 신사인 인> 4월 26일 개봉 예정



<리프트> 4월 26일 개봉 예정



<호리보다 무서운 겨울손님> 상영 중



<그날, 바다> 상영 중



<눈사람들> 상영 중

'킁킁킁' 맛있는 애벌레 이야기, '야미야미' 야미벅스



야미벅스 이동민 대표

프로젝트 진행 당시, 이 대표는 환경 분야를 파고들다가 곤충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운 좋게도 정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됐고,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것이다.

초창기, 이 대표는 두 명의 동료와 함께 회사를 꾸려 나갔다. 제품을 처음 개발했을 때는 어떻게든 매출을 올려야 해서 영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직원이 필요했다. 마침, 스타트업에 관심 갖고 있던 친구들이 있어서 이 대표는 그들을 영입했다. 지금은 두 명 모두 각자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야미벅스로부터 독립한 상태다.

식용곤충에게서 건강식품을 떠올린다는 것

“곤충은 호불호도 아니고, 불호밖에 없잖아요?” 이 대표가 씩씩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하고 많은 사업 아이템 중 굳이 식용곤충을 고른 이유를 묻자, 그는 “식용곤충이야말로 가장 환경적이고 경제적인 것이에요”라고 단언했다.

식용곤충에 대해 자세히 연구해본 결과, 그는 생각보다 곤충에 의학적 효능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그는 식용곤충으로 건강식품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건강식품을 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랐다. 의학이나 한의학, 약학 전공자가 아닌 그가 건강식품 시장에 뛰어들자 경쟁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건강식품을 론칭하기 이전에 이력을 쌓고자 ‘웰던 브라우니’와 에너지바 ‘루다’ 등의 간식을 먼저 출시했다.

‘웰던 브라우니’부터 ‘흑마’까지

야미벅스의 제품은 크게 간식과 건강식품으로 나뉜다. 간식은 ‘웰던 브라우니’와 ‘루다’가 있다. 웰던 브라우니는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국내산 무농약 찹보리와 식용곤충의 대표주자인 ‘고소애’로 만든 브라우니다. 고소애는 ‘고소한 맛을 내는 애벌레’로 식용곤충의 일종이다. 이 대표는 “곤충을 넣어도 맛있을 수 있다는



▲지난 해, 이 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7년 6차산업 사업모델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제공: 야미벅스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개발했어요. 칼로리와 나트륨 함량은 기존 브라우니의 절반 정도로 줄였어요. 커피와 함께 부담없이 즐길 수 있게 만든 거예요”라고 말했다.

루다는 ‘뜻하는 것이 그대로 되게 하더라’는 뜻의 순우리말 ‘이루다’에서 따온 명칭이다. 이것 역시 찹보리와 고소애를 주재료로 만들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에너지바에는 기본적으로 견과류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어떤 재료를 추가하고 어떤 방식으로 가공하느냐에 따라 영양 성분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서 이 대표는 타깃을 네 부류로 나눠 노인용, 수험생용, 다이어트용, 식사용 에너지바를 제작했다. 그는 “어르신들은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어들어 잘 걷지 못하게 되거나 떨림 증상을 호소하곤 하세요. 이런 분들을 위해 단백질과 철분 함량을 높인 에너지바를 만들었어요. 수험생을 위한 제품에는 오메가3와 야미노산 함량을 높여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어요”라며 각각의 기능을 소개했다.

새롭게 선보인 건강식품도 있다. 먼저, 간 기능에 도움을 주는 ‘뽕뽕이’이다. 그가 ‘뽕뽕이’에 활용한 ‘꽃뽕이’는 ‘흰점박이꽃뽕지’의 유충인데, 간염·간경화·간암 등 간 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 다른 신제품인 ‘흑마’는 남성에게 특히 좋은 정력제다. 흑마에 사용된

곤충은 ‘순누에’인데, 과거 조선시대부터 성기능 향상에 효과가 좋기로 알려져 있었다. 오죽하면 ‘누에그라’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가축을 더 살찌울 수 있어요. 상품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라며 식용곤충 사료의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야미벅스의 최종 중창지가 있다면

이 대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이 먹는 식용곤충 식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먹는 식용곤충 사료를 만드는 것이다. 식용곤충이 식품시장에 알려지게 된 배경은 ‘대체식량’, ‘미래식량’으로 주목받게 되면서부터다.

그는 “솔직히 사람이 먹기에 곤충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을 가축용으로 배합하면 가축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어요. 또, 친환경적이기도 하죠. 가축을 기르면서 발생하는 분뇨를 발효시켜 곤충에게 먹이면 축산폐기물을 자연적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식용곤충 사료는 고단백·저지방·저탄수화물이라서

스타트업을 꿈꾸는 학우들에게 한 마디

인터뷰 끝 무렵, 마지막 질문을 마주한 이 대표는 씩씩러운 듯 미소를 지더니 짧은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그는 “스타트업은 누군가 닦아 놓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따라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다르게 한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스타트업 진입에 대한 주위의 반응이 좋지 않더라도 자신을 믿고 끝까지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조언했다.

강예림 기자

kyr_0728@hansung.ac.kr



▲성기능 향상에 탁월한 ‘순누에’로 만든 정력제 ‘흑마’의 홍보 리플렛

우리의 식탁에서 가축·어류와 식물로 조리된 음식을 빼면 과연 어떤 것이 남을지 떠올려 보자. 쌀 밥부터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생선구이 등... 우리가 섭취하는 대부분의 식품은 가축·어류 혹은 식물로 이뤄져 있다. 그렇다면 ‘곤충’은 어떠한가?

사실 곤충을 먹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다. 혹여 누군가 곤충을 먹는다고 해도 기껏해야 번데기, 메뚜기 정도다.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곤충을 먹는다니... 누군가는 이를 ‘이해되지 않는 것’을 넘어 ‘혐오감을 주는 것’이라고 표현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곤충의 ‘형태’를 찾아볼 수 없는 모양으로, 맛도 있고 몸에도 좋은 식품을 만들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야미벅스(YummyBugs)’의 이동민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써낸 장본인이다.

식용곤충 청년 스타트업 ‘야미벅스’

“식용곤충을 활용해서 건강식품을 만들고 있는 야미벅스 대표 이동민입니다.” 야미벅스 이동민

(무역 4) 대표의 자기소개로 인터뷰가 시작됐다. 이 대표는 현재 우리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식용곤충 가공식품 기업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야미벅스’라는 명칭은 ‘맛있다’는 뜻의 ‘야미(Yummy)’와 ‘곤충’을 뜻하는 ‘벅스(Bugs)’를 합성한 단어로 ‘맛있는 곤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곤충을 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 위해 고안한 이름이다. 그는 현재 전주에 위치한 본사와 평택 소재 공장, 서울에 있는 학교를 계속 해서 옮겨 다니며 작업 중이다. 사업 초반에는 식사대용 간식을 주요 상품으로 내걸었지만 요즘은 건강식품을 만드는 데 더욱 주력하고 있다.

평범한 대학생, 스타트업에 눈을 뜨다

그에게 스타트업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애당초 스타트업에 대한 심조차 없던 그는 우연한 계기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학교에서 진행한 스타트업 특강이 첫 번째 기회였다. ‘소셜벤처’라고 일컫는 사회적 기업을 기획하는 프로젝트였다.



▲국내산 무농약 찹보리와 고소한 애벌레 ‘고소애’를 배합한 ‘웰던 브라우니’. 저칼로리·저나트륨·고단백질 간식으로 영양소와 맛을 한꺼번에 잡았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찹보리와 식용곤충 ‘고소애’, 그리고 각종 견과류로 제작한 ‘루다’. 노인용, 수험생용, 다이어트용, 식사용 총 네 가지 종류가 있다.

디자인과 마케팅의 앙상블 '브랜드'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브랜드에 노출된다. 지하철역에 비치된 음료 자판기에는 탄산음료 브랜드 로고가 새겨져 있고, 거리를 거닐다 보면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간판이 줄지어 놓여 있다. 집에 도착해 TV를 틀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가 나온다. 과연 이러한 브랜드는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까?

브랜드를 만드는 전반적인 과정을 통틀어 우리는 '브랜드 디자인'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이라 하면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등을 떠올리기 쉽지만, 브랜드 디자인은 브랜드라는 추상적인 것을 실체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기업은 브랜드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의 제품을 갖고 싶게끔 만든다. 브랜드 디자인은 ▲브랜드 포지셔닝 ▲브랜드 아이덴티티(BI) 제조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시행 순으로 이뤄진다. 브랜드 포지셔닝이란 기업이 브랜드의 콘셉트를 잡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이를 소비할 특정 소비자 그룹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각인시킬 브랜드의 이미지를 결정한다.

가령 고급 승용차를 생산하는 영국 기업 '롤스로이스'는 처음부터 고소독층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음하기 어려운 '롤스로이스'로 명명했다.

그 다음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단계다. 기업은 BI를 이용해 고객들이 브랜드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브랜드의 이름, 로고, 마크 등으로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브랜드 마크에 녹색을 사용했다. 이는 창립 당시 최고급 커피였던 브라질산 원두가 녹색 도장이 찍힌 채 납품된 것에 착안한 것이다.

이렇듯 BI를 만들 때는 시각 디자인 요소들이 주로 동원된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지상현(디자인대학) 교수는 "디자인 분야에서 보면, BI의 기능은 이미지 생산과 인지도 향상 측면으로 나뉜다"고 밝혔다. 색채와 같은 요소들로 브랜드의 이미지를 생산할 수 있고, 읽기 좋은 글씨로 로고의 가독성을 높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는 BI에 녹색과 흰색의 강한 색채 대비를 주어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BI가 완성됐다고 해서 브랜드

디자인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아직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시행' 단계가 남아 있다. 기업은 제품 체험단 모집, 무료 샘플 증정 등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 기업은 마케팅 전략 성과에 따라 향후 브랜드 전략을 수립한다.

브랜드 디자인을 할 때 요구되는 요소로는 창의성과 소비자 트렌드 분석을 꼽을 수 있다. 애플은 '한 입 베어 문 사과'를 마크로 채택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로고에는 완전한 모양을 넣어야 한다는 기존의 상식을 뒤엎었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 트렌드를 분석해 소비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정확히 포착하는 과정도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브랜드는 치밀한 과정을 통해서 산출된다. 단순히 보기 좋은 로고를 만드는 것이 전부야 아니라, 브랜드의 이미지를 만들고 홍보하는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케팅 전문가는 디자이너가 설정한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결국 브랜드는 디자이너와 마케팅 전문가의 앙상블로 만들어진 산물인 것이다.



▲ 스타벅스는 BI에 녹색과 흰색의 강한 색채 대비를 주어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진 제공: 스타벅스



마카롱은 들어봤는데... '머랭'이 '뒹'랭?

요즘 SNS를 하다보면 아기자 기하고 알록달록한 마카롱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우리학교 앞에도 마카롱으로 유명한 디저트 카페가 있으므로 오며 가며 한 번씩은 마카롱을 접해봤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마카롱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마카롱의 주재료인 '머랭'이다. 지금부터 머랭의 A부터 Z까지 파헤쳐보자.

사전에서는 머랭을 '달걀 흰자에 설탕과 약간의 향료를 넣어 거품 낸 뒤 낮은 온도의 오븐에서 구운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제과제빵 현장에서는 굽기 이전 즉, 거품 낸 것 자체를 머랭이라 지칭하는 편이 더욱 일반적이다. 정식대로라면 아몬드, 코코넛, 바닐라 등 각종 향료를 첨가하지만, 이를 생략해도 머랭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마카롱 외에도 머랭으로 할 수 있는 요리는 다양하다.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케이크와 카스테라는 물론, 누네피네와 티라미수에도 머랭이 들어간다. 이외에도 머랭만으로 만들 수 있는 '머랭쿠키'와 머랭으로 끓인 수프 '몽소메'까지... 머랭의 변신은 무궁무진하다.

최근, 단순한 레시피로 집에서 빵이나 과자를 굽는 홈베이킹이 유행하면서 머랭 만들기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머랭을 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일로 알려져 있다.

머랭을 치려면 달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할 때 노른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달걀 흰자는 수분 85%와 단백질 15%로 구성돼 있는데, 거품기로 흰자에 충격을 가하면 단백질의 균형이 깨지면서 그 구조가

풀어진다. 이것을 '단백질 변성'이라 한다. 이렇게 변성된 단백질이 달걀 흰자 내 수분, 휘핑 시 유입되는 공기와 서로 결합하면서 더 단단하고 응집력 있는 머랭을 형성하는 것이다.

반면, 노른자에는 지방이 32% 가량 함유돼 있는데, 지방은 흰자의 수분과 단백질이 결합하는 것을 막아 거품이 이는 것을 방해한다. 일종의 '소포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노른자가 들어가면 머랭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다.

달걀 흰자만큼 머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재료는 '설탕'이다. 머랭을 칠 때 일어나는 거품은 불안정한 상태라서 기포의 공기가 빠져 나가면 금방 사라지고 만다. 그런데 거품에 설탕을 넣으면 점성이 강화돼 기포가 안정화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설탕을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눠서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안정적인 기포 형성이 어려워 거품의 부피가 작아지고, 결국 원하는 질감을 얻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머랭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백설탕 대신 다른 재료를 넣어도 될까? 윤성준(혜전대학교 제과제빵과) 교수는 "물론 황설탕이나 흑설탕으로도 머랭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정제당이 아닌 만큼 연화제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한다. 꿀, 물엿, 조청, 올리고당 등으로 설탕을 대체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결정화 단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거품이 지속되기는 어렵다"며 가급적 백설탕을 사용할 것을 추천했다.

강예림 기자
kyr_0728@hansung.ac.kr



윤희승 기자
yoonhng@gmail.com

이제 'VAR 시스템'도 경기의 일부

새벽 4시, 치킨과 맥주를 손에 쥐고 콩닥대는 가슴으로 텔레비전 앞에 앉은 김축덕 씨. 오늘은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통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축구 경기 날이다. 양 팀 모두 점수를 내지 못한 전 반전 종료 직전, 태극전사가 터트린 썩기골. 하지만 심판은 오프사이드 판정을 내리고 만다. 오심에 충격을 받은 김축덕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닭다리를 놓치게 되고, 닭다리가 바닥에 떨어지고 동시에 잠에서 깨게 된다. 매일 밤 이러한 악몽에 시달리던 김축덕 씨의 잠자리를 편하게 만들어준 소식은 바로 'VAR 시스템의 도입'이다.

'VAR(Video Assistant Referee) 시스템'은 축구 경기에서 비디오 판정을 부르는 말로, 심판의 판정을 실시

간으로 확인해 오심이나 놓친 판정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 주심 외에 심판을 여럿 두는 이유는 선수와 공의 움직임이 빨라서 육안으로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시차(視差)'가 오심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시차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선 '차원'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 우리는 3차원 공간에서 살아 가고, 3차원을 보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 눈에 전달되는 시각 정보는 2차원적이라, 실제로 우리는 3차원 세계를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는 나비가 '양옆(α축)과 위아래(γ축), 앞뒤(ε축)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눈이 받아들이는 나비의 움직임은

'양옆(α축)과 위아래(γ축)뿐이다. 우리의 뇌는 양쪽 눈을 통해 받아들인 2차원 시각정보를 통해 입체(3차원)를 인식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시차'다. 시차는 관측 위치에

따라 나타나는 '물체의 위치나 방향의 차이'를 말한다.

우리의 눈은 가로 방향으로 약 6.5cm 떨어져 있다. 이 간격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 눈은 서로 다른



시각정보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 '양안 시차'다. 우리가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양안 시차를 뇌가 재해석하기 때문인데, 이는 2차원 정보를 바탕으로 '추측'하는 것이라 완벽하지 않다. 따라서 같은 공을 보고 있어도 보는 장소와 각도에 따라 그 위치나 형태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오심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영상을 촬영해 물체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VAR 시스템에는 골라인에 설치된 카메라 2개를 포함한 최소 12개의 카메라, 그리고 비디오 판독 부심이 필요하다. 비디오 판독 부심은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최적의 각도를 찾아 경기장의 중심에 전송한다. 주심을 이를 참고해

최종 판정을 내린다.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지난 1월, VAR 시스템 도입에 대해 "2016년 3월부터 지난 2년간, VAR 시스템은 1,000여 회의 경기에서 사용됐고, 98.9%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말도 옛말이 된 것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러시아 월드컵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월드컵에 VAR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소식을 들은 김축덕 씨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에게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하게 잠이 들었다.

박금정 기자
rma0418@hansung.ac.kr

의화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어두운 단면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이하 SNS)는 현대인들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 스마트폰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다. SNS를 통해 개인 사용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지인들과 공유함과 동시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업은 이를 마케팅에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장맛빛 미래만을 약속할 줄 알았던 SNS에서 최근 들어 적잖은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이슈로는 2018년도 3월에 있었던 페이스북의 미국 대선 개입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페이스북에서 수집한 페이스북 사용자의 트러플 정권에 대한 선호도 정보를 활용하여, 트러플가 이를 선거

운동에 활용함으로써 매우 효과적으로 유권자의 표를 얻었던 사건을 말한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SNS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곤 한다. 아무런 보상이 없는 SNS이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현대인들이 가지는 외로움과 심리적인 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며, 이를 페이스북은 너무나도 잘 알고 이용하고 있다. 만약 많은 이들이 SNS를 통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이에 대해 보살핌 혹은 따뜻한 격려를 받을 수 있다면, SNS는 분명히 모든 이들이 활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SNS 기술과 이를 운용하는 기업의 마인드는 이를 대변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인다. 현재 SNS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지금과 같이 SNS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박지성을 세계적인 축구선수로 키운 퍼거슨 감독의 말을 한 번 더 곱씹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SNS는 인생의 낭비다. 그 시간에 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자.”

서화정(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삼 학 송 · 프로의 자격

‘프로’라는 말이 ‘전문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프로페셔널(Professional)’이란 단어에서 나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흔치 않다. 어딘가 어설피폰 ‘아마추어’와 반대되는, 그 일을 직업으로 삼는 진짜 배기 전문가인 것이다. 따라서 언론에서 흔히 ‘프로’라고 하면, 당연히 이는 정식 언론사에서 일하는 기자들을 지칭한다.

우리는 프로에게 아마추어와는 다른 모습을 기대한다. 어설피폰 아니고, 실수하지 않으며, 책임 있는 자세로 주어진 업무를 완수하는 프로의 모습이란 낭만적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누가 그랬던가, 낭만과 현실 사이에는 늘 괴리가 있는 법이라고. 이번에 벌어진 ‘학보사 기사 무단 도용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준다.

지난 4월 9일 발행된 <고대신문>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사인 N사는 <고대신문>을 비롯하여 <대학신문>, <서강학보> 등 총 16개의 학보사에서 80여 편의 기사를 무단으로 도용했다. 그마저도 어디까지나 ‘확인’된 범위일 뿐이지, 찾아보면 얼마나 더 많은 학보사가 연관되어 있을지는 미지수다. 심지어는 학보사 기자의 이름까지 그대로 가져오거나, 학보사가 자체적으로 촬영한 사진에 N사의 워터마크를 박아 게시하기도 했다.

작년 12월, 이미 <대학신문>에서 기사 도용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항의한 바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질이 나쁘다. 당시 N사는 제발 방지와 함께

사과문을 발송했음에도, 계속해서 학보사 기사를 도용해 온 것이다. 유명 포털 사이트들과 뉴스 제휴를 맺고 있고, 공식적인 언론사 목록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프로’ 언론이 ‘아마추어’인 학보사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고스란히 베껴온 셈이다.

이 사태에 대해 ‘프로’가 늘어놓는 변명 역시 웅색하기만 하다. 기사에 따르면 N사의 대표는 인터넷언론 업계의 열악한 환경으로 책임을 돌렸다. 현재 인터넷언론은 언론사 6,000여 개 중 제대로 운영이 가능한 언론사가 800여 개도 안 될 정도의 레드오션이며, 이런 상황 때문에 도의적으로 어긋난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의 열악함이 ‘도둑질’의 이유가 된다면 장발장은 장장 19년 동안 옥고를 견뎌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른바 ‘저널리즘의 위기’라고 일컫는 시대, 이제 ‘프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수많은 언론들이 난립하고 있다. 다른 언론의 기사를 베껴오는 ‘우라카이’는 이미 언론의 오랜 관습이자 밥줄이며, 핫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노 룩(No Look) 취재’마저 서슴지 않는 건 이미 일상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엄연히 ‘프로의 자격’은 존재하는 법이다. 이 세상에 ‘아마추어적인 프로’는 필요하지 않다. ‘프로’의 이름을 감당하려면 그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주형 편집국장

기자수첩

지난 달 29일, 예술대학과 공과대학의 보궐선거를 끝으로 공개기구 구성이 일단락됐다. 지금까지 여러 공개기구의 출범을 지켜본 입장에서, 이번 년도에 공개기구가 내세운 공약들은 예년에 세워진 공약을 ‘복붙’한 느낌이 강했다. 혹시나 공개기구 대표들이 ‘단선은 곧 당선’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별다른 고민없이 전 대의 공약만을 답습하며,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과거 우리학교에는 총여학생회, 야간총학생회 등 여러 공개기구가 있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지만, 이들이 총학생회에 통합된 지금, 온전히 학생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총학생회뿐이다.

공약은 사골이 아니다

실례로 과거 야간 총학생회가 내세운 공약 중에는 ▲야간 점등시간 조정 ▲야간 학생들을 위한 계림라 야식 배부 ▲각종 시설 운영시간 연장 ▲가로등 추가 설치 및 전등받기 개선 등 야간 학생의 실질적인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들이 많았다. 이처럼 적재적소에 필요한 공약을 내세웠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 꾸려진 공개기구들은 기존 사업을 유지한다는 식의 발전 없는 공약만 내세우고 있다.

공개기구가 계속해서 비슷한 공약들만 제시한다면, 필연적으로 ‘학생 대표’의 역할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저 전 대를 답습하는 것뿐이라면 이렇다 할 공약이나 기조도 없이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지 않으니, 대학본부에 학생들의 요구를 전달할 일도 없고, ‘학생 대표’라는 그럴듯한 명패를 걸치고 있으면서도, MT나 체전 같은 연례 행사만 진행하는 ‘학생사무소’ 수준의 역할만 수행하고 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무작정 학생회만의 잘못이라고 몰아갈 수는 없다. 학생 자치 실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뜻을 모아 대변하는 학생회의 힘은 학생에 의해 부여된 권력으로부터 발휘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낙산에 올라

여덟 살부터 스물일곱, 여덟 살까지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약 이십 년간 교육을 받는다. 한국에서 온전히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한데, 거의 모든 국민은 사회적으로 공식적인 것이라 여겨지는 일정한 교육 프레임에 이수하는데 장대한 시간을 지불한다. 그러나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값이 상당한 수준인지는 의문이다.

약 이십 년이라는 기간은 한국에서 대학 교육과정까지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휴학 없이 밟을 때 걸리는 시간이다. 초등교육과정에서 대학교육과정까지를 ‘한국의 공식적 교육’이라 지칭해보겠다. 한국의 공식적 교육에서는 배움의 이유를 찾기가 무척 힘들다.

학습에서 맥락은 적고 지식의 파편들이 흩어져 있어 전체적인 학문 세계를 바라보기 어렵다. 학습 목표에서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제시하지만 할 뿐, 학생들에게 앞으로 배울 능력이 왜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기 능하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이는 학문 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학문이 발전한 역사를 체계적으로 접하지 못해서 학문사(史)를 통해 학문의 주류를 파악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학문의 담론, 학문의 의의, 학문의 난제, 학문의 과제, 학문의 사용 가치를 접하지 못한다. 배우고 있는 내용이 어떤 문제 제기로부터 나온 것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어떻게 쓰일 것으로

기대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인간의 진실한 성장이고, 한국 정부의 교육적 목표는 인간의 진실한 성장이라는 목표에 포함된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공식적 교육을 받으면 교육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교육의 목표는 성공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4년제 대학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들 중 지적인 부분에서 학문적 내용을 스스로 찾고, 조정하고, 생산하고, 판단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이정민(한국어문 3)

방향 잃은 인생 20%

낙산만평

김수현(인문 2)



표현능력상담 신청 안내

<사고와표현교육과정>에서는 재학생들의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하여 표현능력상담을 진행합니다. 글쓰기에 대해 고민이 있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신청 자격 한성대학교 학부생
- 상담 기간 2018년 03월 05일(월)~2018년 06월 15일(금)
- 상담 영역 리포트, 서평, 칼럼, 프레젠테이션 문서 등 다양한 유형의 글
- 상담 내용 주제 이해, 아이디어 생성, 목차 구성, 글의 전개, 문장 표현 등 글쓰기 전반
- 신청 방법 ① 글쓰기 센터 홈페이지 상담단의 메뉴에서 ‘상담 > 상담 신청’ 클릭 (<http://writingcenter.hansung.ac.kr>)
- ② 상담 희망 일시 24시간 이전에 신청(신청 확인은 MY PAGE)
- 비교과 포인트 지급 포인트 10점 (최대 포인트 30점)
- 기타 문의 사고와표현 연구실(진리관 104호, ☎ 02-760-4354)

사고와표현교육과정

한성인은 고양이를 좋아해 ♪

학교를 다니다보면 나도 모르게 시선이 머물게 되는 곳이 있다. 작고 귀엽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고양이! 나의 발걸음은 매년 그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스마트폰 사진첩에는 무표정한 그들의 모습이 쌓여만 간다. 매년 한결같은 모습이지만 자꾸 봐도 질리지 않는, 마성의 매력을 가진 한성대 길냥이들의 매력에 흠뻑 취해보자.

탐냥이와 인성냥이 가족들

교내에는 2개의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다. 우리학교 동물복지 동아리 '냥둥이'가 매일 이곳에 사료를 배급하고 관리해 교내 길고양이들에게 식사를 챙겨준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탐구관과 인성관에 하나씩 있는데, 냥둥이는 탐구관 급식소를 애용하는 고양이를 '탐냥이', 인성관 급식소를 이용하는 고양이를 '인성냥이 가족'이라고 부른다.

낮을 많이 가려 학생들이 다가가면 도망갈 때가 많은 탐냥이는 추운 겨울을

견디고 건강하게 자라준 고양이이다. 햇빛이 좋은 날에는 급식소 위에 올라가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인성냥이 가족은 흰색 바탕에 연갈색 무늬를 가지고 있다. 3~4마리로 구성된



▲지면에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길냥이. 큰 외부식과 주차장 입구 사이에 서식한다. 너무나 귀엽지만 가까이 다가가려하면 도망친다.

가족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사료 배급시간에 맞춰 냥둥이 부원들을 마중하거나 때때로 눈인사를 나누기도 한다. 작년에는 몸집이 작은 고양이였지만 한성대 학생들의 애정을 듬뿍 받아 부쩍 자랐다.



▲용구비어 앞에 서식하는 하곳길 대표 길냥이. 평소에는 사진과 같은 또랑또랑한 눈동자를 보기 힘들다. 꼬리로 감싼 두 발이 심쿵 포인트!

하곳길 대표 길냥이

학교를 빠져나왔다고 해서 고양이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우촌관 중문 앞과 탐구관 후문에서 이어지는 '데스로드' 끝에도 길냥이의 매력이 흠뻑 묻어 있기 때문이다.

우촌관 중문 앞 마카롱집 짹까스위츠에 거주하고 있는 고양이는 '중문이', '똥똥이', '진다르크' 등 다양한 별명을 가지고 있다. 주변 길냥이 중 가장 애교가 많고, 사람의 손을 많이 탄 친구다.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위에서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데스로드 끝에도 학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길냥이가 있다. 용구비어 앞에 자리잡은 고양이인데, 무심한듯 표정이 특징이다. 집에 가는 길에 마주치지 못하면 지하철에 몸을 신기 직전까지 계속 신경쓰일 만큼 묘한 매력을 지닌 고양이이다.

박금정 기자

rma0418@hansung.ac.kr

까까의 하루



내 이름은 까까. 여기는 우리 집이야. 뭐? 내가 너무 귀엽다고? 알고 있어. 가랏!



집 앞을 지나다 집사가 심심해보이면 가끔 놀아주곤 하지. 역시 인간이란 정말 성격이...



바바가 고평면 가게 앞 똥공공소에서 사냥을 청계역까지. 마른 멸치나 참치캔이 있는 날은 기분이 좋아!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참치캔이다. 그걸 먹고 자꾸만 쓰다듬으면 개꿀이네! 할게!

마루의 집사 '용구비어'

용구비어 앞에 서식하는 길냥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고양이 이름은 '마루'입니다. 용구비어가 오픈하기 전에는 이곳에 고깃집이 있었어요. 마루는 그때부터 이곳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때 고깃집 주인분들이 부르던 이름이 바로 마루예요. 간혹 용구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좋아보이더군요(웃음).

어떻게 마루의 집사가 되었나요?

사료가 없어서 처음에는 '오다 말겠지' 하는 마음으로 튀김옷을 제거한 살코기를 주곤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주변분들이 더 나서서 마루를 신경써 주시더라고요. 담요랑 집도 주시고 간식도 많이 챙겨주셔서 다 같이 돌보기 편하게 자리를 잡아주었어요. 이렇게 매일 사료를 챙겨주게 됐죠.

마루의 하루를 소개해주세요.

제가 아는 바로는 먹고 자고 사람들에게 애교떠는 것뿐이에요(웃음). 가게 오픈 전까지는 마루가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지만, 문 열 때가 되면 문 앞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가 가장 귀엽더라고요. 마감하고 조명을 끄면 알아서 조용히 나가는 것도 신기해요.

마루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루가 가장 좋아하는 건 저희 오픈 시간이 아닐까요? 매일 기다리고 있으니, 하하.

마루의 매력은요?

평퍼진 몸매와 순한 성격이죠. 그리고 애교가 많은 점도 마루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까까의 집사 '짹까스위츠'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는지?

개업한지 얼마 안 됐을 때, 까까가 가게 앞을 기웃기웃거리다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서 고양이 사료랑 간식을 한두 번 가져다줬는데, 계속 챙겨주게 됐어요. 어디 가지도 않고 맨날 가게 근처에서 맴돌길래 집도 만들어주게 됐고요. 길고양이들은 고양이 키우는 사람을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저한테 고양이 냄새가 나서 들어온 게 아닐까 싶어요.

까까의 하루를 소개해주세요.

까까는 아이들처럼 지내요(웃음). 가게 앞에 널브러져 인기를 끌면서 하루를 보내죠. 어디 가지도 않고, 기분이 좋을 때는 만져도 가만히 있어요. 제가 혼자 작업할 때는 무릎냥이가 되어 꺾꺾이를 해주기도 해요.

까까가 좋아하는 건 무엇인가요?

비싼 간식? 하하. 싼 간식은 잘 안 먹으려고 하고, 해외 간식을 좋아하더라고요.

자랑 좀 해주세요!

일단 너무 귀여워요. 고양이가 귀엽지 않아요. 마시멜로 같은 몸, 작고 오동통한 꼬리가 특히 귀여워요.

까까의 메인 집사로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물리지만 얹으셨으면 좋겠어요(웃음). 까까가 한 성격해서 기분이 나쁘면 바로 물어버리더라고요. 저도 많이 물려서 피가 몇 번 났어요. 지금처럼 계속 좋아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나 사실, 너의 집사야

To. 짹까 앞의 너

방학 때는 짹까스위츠도 문 닫고, 학교에 사람도 별로 없어서 그동안 간식 열심히 챙겨줬는데..... 개강하니 너 나 모른 척하더라? 방학엔 그 앓을 지나가기만 해도 집에서 나오더니..... 서운하지만 귀여우니까 봐줄게. 앞으로 너의 간식은 내가 책임질게. 꼬꼬,
조보경(한국어문 3)

To. 인성관 귀요미 냥옹이

안녕 냥옹아!!! 금요일마다 너를 보기 위해서 사료와 물을 주면서 조심조심 다가가는데, 네가 항상 멀리 도망가서 약간 서운해ㅠㅠ 그래도 꾸준히 사료도 주고 잘 챙겨주다 보면 언젠가는 가까이 와서 반겨줄거지? 너랑 친해지는 그 날까지 언니가 열심히 챙겨줄게♡ 이번 주에 또 보자. 안녕 냥옹아!!!
원정은(사회과학 1)

To. 용구 앞 너

방학 내내 못 보다가 개강하고 처음 봤는데 더 똥똥해졌더라? 나 말고 사랑해 주는 사람이 많은가 봐? 너한테는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졸업해도 아는 척 해줄거지?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본 고양이 중에 너가 제일 귀여워.
남다솔(전자정보 3)

To. 기지개를 펴는 유독 길던 길냥이

안녕. 너는 항상 기다란 모습을 보여주더라. 너의 모습을 볼 때면 한번 들어보고 싶더라. 그러면 네 몸은 더 길어지겠지. 너의 긴 몸통을 보는 건 너무 중독성 있어. 요즘 안 보이던데 다음에 꼭 보자!!
권정은(인문 1)

To. 짹까 앞 고양이

고양쓰. 너 너무 귀엽고 흰 양말도 너무 귀여워. 추우면 안 보이던데 어느 집에서 귀여움 받고 있니. 귀요미야. 흰 양말로 냥냥펀치 당했을 때부터 나의 한성대 고양이 원픽은 너!
내가 관심 끌려고 내는 아옹소리에 한번 쳐다봐주는 그 모습도 귀엽 포인트! 만지면 눈 감고 한두 번 참아주는 것도 귀여워! 다 귀여워!! 안 귀여운 부분이 없는 냥냥쓰 사랑해!!!!
김진경(전자정보 3)

To. 어제 한성대신문사 앞에서 본 턱시도 냥이

안녕. 나는 어제 처음 너를 보고 사랑에 빠진 '집사 2'야. 안 그래도 요즘 턱시도 냥이에게 빠져있었는데 네가 도도하게 바람을 쐬는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하지 않을 수 없었어...♥ 2년째 학교를 오가며 모든 고양이를 눈여겨봤지만, 학교 주변에서 턱시도 냥이는 처음 봐서 너무 기뻐!! 하지만 너는 내가 다가가지 너무 도도하고 시크하게 휘가 버렸지ㅠ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눈길 한 번만 주세요. 냥님ㅠㅠ!! 그래도 사랑해!
최희서(기계·전자 2)

